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친연성에 관한 비교문학적인 고찰

김환희*

목 차

1. 머리말: 한일 뱀신랑 탐색담에 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 연구
2. 한국과 일본의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설화
3.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일본 기기(記紀) 신화 및 구전 설화의 이질성
4.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세경본풀이〉의 공통 모티프: 승천, 박, 개미
5. 결론: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친연성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구전설화 <구렁덩덩신선비>와 일본 문헌설화 <아메와카히코조시>에 공통으로 내재된 서사 구조와 모티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친연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ATU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유형에 넣을 수 있는 이 두 설화는 화자, 전승매체, 향유층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서사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저본이 된 <건축위 설화> 속의 뱀신랑의 이미지와 이류교혼은 일본의 기기신화 및 구전설화에 나타난 것과는 사뭇 다르며, 오히려 <구렁덩덩신선비>와 더 유사하다. 또한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칠석유래담으로서 지녀천남 형의 인물구성을 택하고 있어서 일본 구전설화와는 많이 다르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 삽입되어 있는 지녀승천, 박씨와 박줄, 개미 따위의 모티프는 제주도 무가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특히 ‘곡식 한 톨을 운반하는 개미’ 모티프는 일본 설화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세경본

*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전임연구교수.

풀이> 뿐만 아니라 <이공본풀이>와 <대홍수와 나무도령> 설화에도 두루 나타나는 것이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한국 구전설화가 보여준 유사성과 친연성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형성에 한국 설화가 미쳤을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주제어 : 구렁덩덩신선비, 아메와카히코조시, <ATU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큐피드와 프시케, 건축위 설화, 동물신랑, 뱀신랑, 제주도 무속신화, 홍수설화, 개미 모티프, 고사기, 일본서기, 구전설화, 비교연구

1. 머리말: 한일 뱀신랑 탐색담에 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 연구

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내가 동물 남편을 잃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지난한 시련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어 왔다. 아르네, 톰슨, 우썰 등의 역사지리학과의 학자들은 이러한 동물 남편 탐색담을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이라고 명명한다.¹⁾ 이 유형의 설화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서기 2세기 경에 로마 문화권의 북부 아프리카 작가 아플레이우스가 쓴 라틴어 소설 『황금당나귀』에 수록된 「큐피드와 프시케」이다. 역사지리학과의 학자들은 「큐피드와 프시케」가 쓰여지기 이전부터 <유형 425> 설화가 유럽 대륙에서 전승되어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형 425> 설화는 모두 15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역사지리학과의 학자들은 “하위 유형 A는 기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신석기 시대의 유럽 대륙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²⁾ 비교문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설화가 흥미로

1) 설화의 유형을 분류할 때 2004년까지는 세계 구비문학자들이 아르네와 톰슨의 이니셜을 딴 ‘AT’를 붙였다. 하지만 2004년에 우썰가 아르네와 톰슨의 책을 증보해서 『국제 설화의 유형』을 출간한 이후로는 ‘아르네-톰슨-우썰’를 의미하는 ‘ATU’를 사용하고 있다. 두 유형집의 번호와 이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FF Communications, No. 184, 1961,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1973). Hans-Jörg Uther, *The Types of International Folktales: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Based on the System of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Vols 1-3, FF Communications No. 284-86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04).

2) Christine Goldberg, “The Historic-Geographic Method: Past and Future.”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Vol. 21, No. 1(1984), pp.1-18.

운 것은 한중일 삼국 가운데서 오로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하위 유형 A>가 전국적으로 구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설화학회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중일 뱀신랑 설화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중국과 일본 측에서 소개한 뱀신랑 설화는 <유형 425> 설화는 아니었다.³⁾ 한중일 간의 뱀신랑 설화를 비교한 논문이나 『일본석화통관 28권: 석화 유형색인』과 『중국 민간고사유형색인』 따위의 유형집을 살펴보아도, ‘금기 파기’와 ‘남편 탐색’ 모티프가 들어 있는 <유형 425> 설화를 찾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지난 세기에 전국적인 규모로 구전설화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각편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유형 425> 설화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편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인지, <구령덩덩신선비>를 <유형 425> 설화의 범주에 넣고 연구한 논문은 「큐피드와 프시케」나 유럽 민담을 비교 대상으로 택하였다. 1985년 이후에 국내에서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편은 「큐피드와 프시케」를 <구령덩덩신선비>와 비교한 논문이었고, 다른 한편은 유럽에서 구전되어 온 동물신랑 탐색담과 비교한 논문이었다.⁴⁾ 비록 한중일의 구전문학 가운데서 <유형 425>에 속할 수 있는 각편들이 한국에서만 전승되어 왔지만, 유사 설화가 일본에서 전혀 전승되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유형 425>는 구전설화로서가 아니라 ‘오토기조시’로 전승되어 왔다. 15세기 무로마

3) 최인학 편저,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 아시아설화학회(민속원, 1999), 101-228면.

4) 1985년에 임석재가 「구령덩덩신선비 설화와 큐비드사이키 설화와의 대비」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에 서대석의 「<구령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이란 논문에서 <구령덩덩신선비>와 「큐피드와 프시케」를 비교하였다. 2004년에는 김환희가 서구 유럽에서 전승되어 온 뱀신랑 민담을 <구령덩덩신선비>와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임석재, 「구령덩덩신선비 설화와 큐비드사이키 설화와의 대비」, 『구비문학 국제 연구 발표회-설화의 연구: 발표문 개요』(1985. 3.21-23,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2-36면; 서대석, 「<구령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72-205면; 김환희, 「구령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동화와 번역』 제4집(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139-171면.

치 시대에 에마키모노로 출간된 「아메와카히코조시」는 <구렁덩덩신선비>나 「큐피드와 프시케」와 유사한 서사내용을 지닌 뱀신랑 설화이다.⁵⁾

「아메와카히코조시」는 고하나조노 천황(後花園天皇 1419년~1471년)이라는 일본 상층문화의 정점에 위치한 인물이 글을 쓴 이야기이고, 화려한 두루마리 그림으로 제작된 이야기여서 전승 매체, 전승자의 신분, 수용자 계층이 <구렁덩덩신선비>와는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 입말로 전승해 온 <구렁덩덩신선비>에 대해 임석재는 “이 설화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 설화는 교양이 없는 아녀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다.”라고 말한다.⁶⁾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유형 425> 설화는 이상스럽게도 한국에서는 구술로만 전해지고 일본에서는 문헌으로만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전승 매체, 화자의 신분, 수용자 계층이 다름에도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서사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서, 한일 설화와 문화의 교류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두 설화의 유사성에 관한 비교 연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는 다사카 마사노리(田阪正則)이다.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뱀 연구』(2004)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 4장에서 다사카 마사노리는 「아메와카히코조시(天稚彦草子)」와 이계탐색형 <구렁덩덩신선비>를 비교하였다.⁷⁾ 다사카 마사노리는 두 설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서사구조로 ‘뱀의 청혼’ ‘남자의 출현과 행복한 첫날밤’ ‘금기와 이별’ ‘남편 찾아 길 떠남’ ‘재회’ ‘난제 극복’을 언급하였다. 다사카 마사노리의 논문은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구렁덩덩신선비> 사이에 존재하는 전승 매체와 전승자 계층의 현격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아메와카히코조시」를 일본에서

5) 본고에서 <구렁덩덩신선비>에는 홑꺼외표를 붙인 것은 <구렁덩덩신선비> 유형의 설화를 통칭하였기 때문이고, 「아메와카히코」에 홑낫표를 붙인 것은 고하나조노 천황이 쓴, 특정한 오토기조시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6) 임석재의, 앞의 글, 35면.

7) 田阪正則, 「IV. 한일 설화 비교연구-- 「아메와카히코조시(天稚彦草子)」와 이계탐색형 「구렁덩덩신선비」,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蛇(뱀)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106-125면.

구전되어 온 뱀신랑 설화 및 기기 신화와 대조해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수성과 개작 양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내재된 서사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메와카히코조시」를 구성하는 뱀과 칠석 모티프가 일본 기기신화 및 구전문학 속의 유사 모티프와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아메와카히코조시」를 구성하는 핵심 모티프 가운데서 일본 설화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지만 제주도 무속신화, 특히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모티프가 있어서, 이것도 함께 비교해볼 생각이다. 국가 간의 설화 교류는 일대일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설화에 나타난 유사 모티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본론은 크게 세 장으로 구분된다. 본고의 두 번째 장에서는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를 비교분석하고,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건록위 설화」를 살펴볼 생각이다. 본고의 세 번째 장에서는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일본의 기기 신화, 구전되어 온 뱀신랑 설화 및 칠석 설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생각이다. 본고의 네 번째 장에서는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제주도 무속 신화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세 모티프--지녀승천(地女昇天), 박, 개미--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한국과 일본의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설화

: <구렁덩덩신선비>, 「아메와카히코조시」, 「건록위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로 다사카 마사노리는 마쓰나미 히사코(松浪久子)를 꼽고 있다. 마쓰나미 히사코는 1987년에 쓴 논문에서 최인학이 소개한 <구렁덩덩신선비>(靑大將嚮)와 「아메와카히코조시」를 비교하면서 서사구조의 공통점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마쓰나미 히사코는 양국 설화의 공통점으로 구렁이의 청혼, 전생, 행복한 혼인, 남편의 실종, 남편 탐색, 노인과 하녀의 도움, 난제 해결, 부부재회라는 구조를 언급하였고, 그 차이점으로는 남편을 탐색하러 가는 이계가 각각 천상계와 용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⁸⁾ 반면에 같은

해에 칠석 설화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후지타 나오키(藤田尚樹)는 <구령덩덩신선비>가 일본에서는 전승되지 않는 옛이야기라고 보았다. 이 두 학자들의 고찰은 최인학이 1976년에 출간한 『한국설화의 연구』(韓國昔話の研究—その理論とタイプインデックス)에 기술된 유형 요약문에 기초한 것이어서 제대로 된 비교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앞서 우선 <구령덩덩신선비> 이계탐색형의 보편적인 서사내용과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소개하기로 한다.⁹⁾

어떤 할머니가 구령이 아들을 낳는다. 부잣집 세 딸이 아기를 보러 왔는데, 첫째와 둘째는 구령이를 혐오하는 말을 내뱉고, 셋째 딸은 칭찬하는 말을 한다. 구령이는 한 손에 불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어머니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위협해서 부잣집에 혼담을 건넨다. 부잣집 영감이 딸들의 의사를 물으니, 두 딸은 싫다고 하고, 셋째 딸은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다. 구령이는 결혼 첫날밤에 가마술에 끓인 물(밀가루, 된장, 간장)로 목욕한 후에 허물을 벗고 잘생긴 선비로 변신한다.

어느 날 남편은 ‘허물을 태우지 말라’는 금기를 색시에게 말하고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또는 공부하러) 떠난다. 동생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기한 두 언니가 동전 속에 감추어 둔 허물을 빼앗아서 불에 태운다. 허물 타는 냄새를 맡은 남편은 색시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색시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온갖 시련을 겪는다. 까마귀나 멧돼지의 먹이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논 또는 밭을 가는 사람의 일과 빨래하는 여인의 일을 돕기도 한다. 검은 빨래가 흰 빨래가 되고, 흰 빨래가 검은 빨래가 될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남편이 물의 세계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빨래하는 여인이 준 은복주개와 젓가락(방망이, 강아지)을 사용해 물을 건너서 남편이 있는 다른 세계로 여행한다.

남편의 나라에 온 색시는 새보는 아이의 노랫말을 듣다가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된다. 새보는 아이가 가르쳐 준 기와집에 들어 간 아내를 꾀를 써서 동냥 받은 쌀을 땅에 쏟은 후에 젓가락으로 주우면서 남편을 만날 기회를 노린다. 날이 저

8) 田阪正則, 같은 글, 107면.

9) <구령덩덩신선비>는 하위 유형을 보통 넷으로 나누는 데, 그 가운데서 서사가 가장 풍부하고 채록 편수도 많은 이야기가 다사카 마사노리가 비교한 이계탐색형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논문들을 종합분석한 김경희와 최교연의 논문을 참조하고,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수록된 13편의 각편들을 분석해서 <구령덩덩신선비> 이계 탐색형의 주요 서사 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김경희, 「구령덩덩신선비 설화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석사학위 논문, 1997); 최교연, 「<구령덩덩신선비>의 전승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7).

물어 마루 밑(또는 곳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색시는 남편과 재회한다. 달밤에 달을 향해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남편의 노래 또는 혼잣말을 들은 아내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또 다른 색시가 있어서, 셋째 딸은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시합을 벌이게 된다.

남편이 두 여자에게 내 준 과제는 나막신 신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기, 나무 해오기(짜리나무 열 단 또는 새 있는 나뭇가지 가져오기), 호랑이 눈썹 세 대 뽑아 오기 따위이다. 호랑이 눈썹을 뽑아야 하는 마지막 과제를 호랑이 아들을 셋 둔 할머니에게 통사정해서 무사히 끝마친 색시는 남편과 재결합한다.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적이 없고, 다사카 마사노리의 논문에서도 서사 개요만 간략하게 소개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미노 요시히코와 마츠모토 류신이 현대어로 고친 판본을 두 편 참조해서 고타나조노 천황이 글을 쓴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줄거리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¹⁰⁾

부잣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데,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편지를 뺏으면서 그것을 부자 영감에 전해주라고 말한다. 편지에는 딸을 주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을 가져다주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죽어도 구렁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필쩍 뛰고, 부모가 제일 예뻐하는 막내가 청혼을 받아들인다. 구렁이가 말한 대로 연못가 저택에 집을 짓고 그곳에 셋째 딸을 내려놓으니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난다. 연못가의 구렁이는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톱 깎는 칼로 머리를 찌르라고 말한다. 셋째 딸이 구렁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깐 허물이 벗겨지면서 멋진 옷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나타난다. 남자는 뱀 허물을 다시 덮어쓰고 여자와 궤 안에 들어가서 동침한다.

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풍요롭게 사는 데 어느날 남편이 자신은 바다의 용왕(海龍王)인데, 볼 일이 있어 내일 모레 하늘에 올라갔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만약에 삼 주가 지나도 오지 않으면 서쪽 도시(西の京)에 있

10) 「아메와카히코조시」 줄거리는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의 2인이 편찬한 『いまは昔むかしは今1 瓜と竜蛇』(福音館書店, 1989), 19-37면과 429-431면을 참조해서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에마키모도로 전승되는 「아메와카히코조시」를 현대어로 손질해서 앞 부분(19-37면)에 소개한 다음에 책의 뒷부분에 원문에 충실한 텍스트(427-429면)를 다시 소개하고 있다. 줄거리는 이 두 텍스트를 살펴보고 내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다. 이외에도 마츠모토 류신의 책도 참조하였다. 松本隆信 校註, 『御伽草子集: 新潮日本古典集成 第34回』(新潮, 1980), 76면.

는 어떤 여자에게 가서, 일야표(一夜杓)를 구해서 하늘에 올라오라고 말한다. 하늘에 오르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메와카미코 님이 어디에 사시냐고 물으라고 일러준다. 색시는 궤 열쇠를 허리춤에 잘 매어 두었지만 언니들이 방문했을 때 열쇠가 휘장에 부딪히는 바람에 들켜서 빼앗기게 된다. 시샘이 난 언니들이 억지로 궤를 열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궤 안이 텅 빈 것을 확인한 언니들은 시들해져서 집으로 되돌아간다.

색시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서경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일야표를 건네받아서 하늘에 오른다. 색시는 자신이 사라져서 부모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의 모습을 한 개뿔바라기, 혜성, 묘성을 만나서 남편의 행방을 묻지만 답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화려한 가마를 탄 사람에게서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된다. 남편은 유리 대지 위에 옥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에서 색시는 남편과 행복한 재회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남편은 오니(鬼)인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내를 숨겨 둔다. 남편은 아버지가 올 때마다 아내를 부채와 베개로 변신시키지만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들어 온 아버지에게 아내의 존재를 들리고 만다.

색시는 시아버지-오니로부터 여러 힘든 과제를 부여받지만 그럴 때마다 아메와카히코가 준 마법의 소매를 흔들면서 주문을 읊조리고, 개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과제를 무사히 끝마친다. 오니가 부여한 과제는 천 마리의 소를 돌보기, 천 석의 쌀을 다른 창고로 옮기기, 지네 창고와 뱀 성에서 지내기였다. 색시가 이 모든 과제를 무사히 치르자 시아버지-오니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라."고 허락을 한다.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일년에 한 번만 만나라고 하셨는지요?"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오니는 "그렇다면 일년에 한 번만 만나라."고 말하면서 오이를 던져서 은하수를 만들어 부부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만 7월 7일에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줄거리를 지닌 「아메와카히코조시」의 기본 서사구조는 <구렁덩덩신선비>와 매우 유사하다. 세 딸을 둔 부자 영감, 구렁이의 협박과 청혼, 두 언니의 거절과 막내의 승낙, 첫날 밤 구렁이가 미남자로 변신하는 것, 구렁이 신랑의 금기 선언, 질투심에 사로잡힌 언니들로 인한 금기 파괴, 색시의 남편 탐색과 이계 여행,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 이계에서 치룬 시련과 과제 따위의 공통된 서사구조를 두 설화는 지니고 있다. 핵심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두 설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친연성에 관한 비교문학적인 고찰 131

	핵심 서사단락	구렁덩덩신선비 (구전 설화)	아메와카히코조시 (천황이 글을 쓴 두루마리 그림)
1	구렁이의 신이한 탄생	할머니가 구렁이 아들을 낳음	X
2	부갓집 세 딸의 방문	첫째와 둘째는 구렁이를 혐오하고 셋째만 칭찬을 함	X
3	구렁이의 청혼과 협박	구렁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협해서 부갓집에 청혼을 함	구렁이가 빨래하는 여자에게 부갓집에 ‘딸을 주지 않으면 재앙을 가져다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라고 협박함.
4	구렁이 신랑의 변신	구렁이 신랑이 끓는 물(간장)로 목욕해서 미남자로 변신	색시가 구렁이의 머리를 손톱 깎는 칼로 찌니 미남자가 나와서 구렁이허물을 뒤집어쓰고 케 안에서 동침함
5	구렁이 신랑의 정체		바다의 용왕(海龍王)
6	구렁이신랑의 금기 언급	허물을 잘 간직하라	허물을 넣어 둔 케(唐櫃)를 열지 말라
7	언니들의 허물 훼손	언니들이 허물을 불에 태움	언니들이 케를 어니깐 언기가 승천
8	지상에서 만난 길 안내자	까마귀, 멧돼지, 논 밭 가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서경(西の京)에 사는 여자
9	이계여행의 도구	은 또는 금 북주개(빨래방망이, 강아지)	일야표(一夜杓, いちやひさこ)
10	구렁이(뱀) 신랑이 사는 이계	물의 세계 저편	천상계
11	이계에서 만난 길 안내자	새 보는(쫓는) 여자 아이	개밥바라기, 혜성, 묘성, 옥여(玉輿)를 탄 사람
12	남편의 집	큰 기와집	유리 땅 위에 지어진 옥(玉)으로 된 저택
13	부부의 재회	달밤에 노래 또는 대화를 나눔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눔
14	색시의 변신	X	남편이 색시를 부채와 베개로 변신시켜 숨김
15	과제를 부여한 주체	구렁이 남편	시아버지-오니(鬼)
16	이계에서 치룬 색시의 난제	1)나막신 신고 물동이 지고 오기 2) 나무 해오기 3)호랑이 눈썹 뽑아오기	1) 천 마리의 소 돌보기 2) 천 석의 쌀 옮기기 3) 지네 창고와 뱀 성에서 지내기
17	조력자	호랑이 할머니	마법의 소매를 준 남편과 개미
18	부부결합 또는 이별	재결합	절반의 재결합
19	칠석과 은하수의 유래	X	오니가 던진 오이 때문에 은하수가 생성되어서 일 년에 한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됨

두 설화의 구조적인 차이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서사의 시작 부분이 다르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구렁이의 신이 한 탄생과 부잣집 세 딸과 구렁이의 만남이라는 화소가 청혼 이전에 펼쳐진다. 「아메와카히코조시」는 구렁이의 탄생이나 신분에 대한 기술 없이 구렁이가 빨래하는 여자에게 갑자기 나타나 편지를 전해달라고 협박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둘째, 이야기의 대단원이 다르다. <구렁덩덩신선비>는 「아메와카히코조시」의 대단원을 구성하는 칠석 모티프--은하수, 견우, 직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이계 탐색형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색시와 뱀신랑이 재결합을 해서 함께 살지만, 일본 설화에서는 헤어져서 칠석에만 만난다. 셋째, 양국 설화에서 색시가 남편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공간과 여행 중에 만난 인물들이 다르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 색시는 사라진 구렁이 신랑을 찾아서 물의 세계를 통과한다. 색시는 지상을 떠돌면서 까마귀, 멧돼지, 논밭 일구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신이한 물건을 얻어서 물의 세계 너머에 살고 있는 남편의 거처로 여행한다. 반면에,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색시는 천상계로 여행한다. 색시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서 어떤 여자에게서 신이한 물건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천상계에서 색시가 만난 인물들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개밥바라기, 혜성, 묘성과 같은 별들이다.

색시가 여행하는 이계가 물의 세계와 천상계라는 점 때문에 두 설화가 보여주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도 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메와카히코는 천상에 살지만 바다의 용왕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물의 세계 너머에 사는 구렁덩덩신선비와 일맥상통한다. 다사카 마사노리는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이계가 하늘로 설정된 것은 “칠석의 유래담으로 끝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¹¹⁾ <구렁덩덩신선비>에서 색시는 물을 통과해서 이계에 이르지만, 그 이계가 반드시 수중계인 것은 아니다. 물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지상계나 지하계 일 수도 있다. 경북, 전북, 충남에서 채록된 각편 가운데는 구렁이 신랑과 색시가

11) 다사카 마사노리, 앞의 글, 118면.

여행 한 이계를, 「아메와카히코조시」와 마찬가지로, 천상계로 설정한 이야기도 있다.¹²⁾ 이외에도, 구렁덩덩신선비가 허물을 벗을 때 아메와카히코처럼 칼을 사용하는 각편도 국내에서 두 편 채록된 바 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채록된 각편¹³⁾에서는 구렁이가 색시에게 칼로 배꼽을 찌라고 해서 허물을 벗으며,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채록된 각편에서는 뱀신랑이 색시에게 창칼을 주면서 배를 가르라고 해서 허물을 벗는다.¹⁴⁾ 많은 일본 학자들이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저본으로 추정하는 「건륙위 설화」에서 뱀신랑은 색시에게 등에서부터 꼬리까지 몸을 갈라달라고 요구해서 허물을 벗는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손톱깎는 칼로 머리를 찌라고 하는 것은 「건륙위 설화」를 변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건륙위(乾陸魏) 설화」는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설화이다.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에 따르면, 「건륙위 설화」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후지와라 다메이에 (藤原 為家 1198-1275)가 편찬한 『고금집주』라고 한다.¹⁵⁾ 아미노 요시히코는 후지와라 다메이에의 아들 레이제이 다메스케(冷泉 為相 1260-1328)가 편찬한 『다메스케 고금집주 為相古今集註』에 수록된 판본이 후지와라 다메이에의 판본에 충실할 거라고 하면서 다메스케 판본을 소개하였다. 후지와라 가문에서 기록한 「건륙위 설화」는 무대가 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설화인지 일본 설화인지 후지와라 다메이에가 창작한 설화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인 서사 구조가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고힌나조노 천황이 「아메와카히코조시」를 쓸 때 「건륙위 설화」를 참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건륙위 설화」의 유사성은, 빨래하는 여자가 처음에 등장한 것, 뱀신랑이 건우성인 것, 칼을 활용해서 허물을 벗는 것,

12) 김광순, 「뱀서방」, 『경북민담』(형설출판사, 1978), 320-21면; 최래옥, 「구렁덩덩신선비」, 『전북민담』(형설출판사, 1979), 23-26면; 박종익 편, 『한국구전설화집 13: 충남편 1』(민속원, 2005), 343-347면.

13) 임석재, 『임석재전집 6 한국구전설화: 충청북도 편/ 충청남도 편』(평민사, 2003), 64면.

14) 『한국구비문학대계 7-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581-582면.

15) 網野善彦의 2인, 앞의 책, 429-431면.

언니들의 질투로 금기를 파기한 것, 궤를 여니깐 연기가 하늘로 사라진 것, 하늘로 여행해서 신랑과 재회하고 며느리 취재 시험을 치른 것, 오이로 인해 은하수가 생겨서 일 년에 한 번만 만나게 된 것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설화의 전반적인 서사구조는 유사하지만, 디테일은 많이 다른 편이다. 「건록위 설화」에서 뱀신랑은 오니의 아들이 아니라 '사왕천에 사는 범천왕(四王天の梵天王)'의 아들로 되어 있다. 뱀의 이름도 해룡왕(海龍王)이 아니라 처음부터 견우성(彦星)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뱀신랑은 처음부터 천상계에 속한 인물로 설정된 것이다. 또한 셋째 딸의 승천을 도운 존재는 자신이 직접 키운 한 쌍의 까치 부부이고, 시아버지 범천왕이 며느리에게 내 준 과제는 날개옷을 짓는 일 한 가지이다. 범천왕은 소를 돌보는 과제를 아들인 견우성에게 내준다.

「건록위 설화」는 견우직녀 설화에 나타나는 여러 화소--소치기, 옷짓기, 까치, 은하수--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구전되어 온 견우직녀담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우주관을 담고 있다. '천상계의 견우'를 '지상계의 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견우와 직녀라는 인물을 천녀지남(天女地男) 형이 아니라 천남지녀(天男地女) 형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칠석 모티프를 도입하면서 천남지녀 형의 인물 구성 방식을 택한 것은 「건록위 설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 같다. 하지만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뱀신랑은 조금 더 복잡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천상계의 견우-지상계의 뱀-바다의 용왕-오니의 아들'인 것이다.

3.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일본 기기(記紀) 신화 및 구전 설화의 이질성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건록위 설화」가 묘사한 뱀신랑의 모습은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뱀신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건록위 설화」의 들머리는 『고사기』에 등장하는 야마타오로찌 퇴치 신화와 유사하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등장하는 장자의 셋째 딸은 『고사기』의 쿠시나다히메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고사기』에서 토리카미라는 곳에 사는 아시나즈찌의 딸 쿠시나다히메는 야마타오로찌

(八俣大蛇)에게 인신공희의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해 있다.¹⁶⁾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건록위 설화」에서 장자의 셋째 딸은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가문에 재앙을 가져다주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뱀의 제물로 바쳐진다. 하지만 이 두 설화에서는, 『고사기』와는 달리, 뱀퇴치자 형의 영웅은 등장하지 않고 셋째 딸은 야마타오로찌를 연상시키는 뱀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부부가 된다. 셋째 딸은 뱀신랑과 행복한 첫날밤을 치루고, 그 뱀신랑은 야마타오로찌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는커녕 천상계로 승천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메와카히코조시」는 「건록위 설화」에서 서사의 뼈대를 빌려오고 『고사기』에 수록된 스사노오(素戔鳴尊)에 관한 두 편의 신화에서 모티프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인 듯싶다. 필자가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고사기』에 수록된 야마타오로찌 신화와 오호아나무지 신화를 서사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¹⁷⁾ 이야기의 전반부는 야마타오로찌(八俣大蛇)와 쿠시나다히메(櫛名田比賣)에 관한 신화에서 모티프를 빌려오고,¹⁸⁾ 후반부는, 마츠모토 류신이 지적한 것처럼, 오호아나무지(大穴牟遲神)와 스세리비메(須勢理毗賣)에 대한 신화에서 모티프를 끌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¹⁹⁾ 하지만, 비록 「아메와카히코조시」가 모티프를 『고사기』에서 끌어오기는 했어도, 등장인물의 설정과 세계관이 『고사기』의 것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후반부에는 오호아나무지 신화에 나타나는 히레, 뱀의 방, 지네의 방 따위의 모티프가 나타나지만 등장인물의 설정이 『고사기』와는 대조적이다. 우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 뒤바뀌고 주인공이 여행한 이계도 지하계가 아니라 천상

16) 노성환 역주, 『고사기』(민속원, 2009), 60-63면.

17) 『고사기』, 71-74면.

18) 勝俣 隆, 「中世小説『七夕』と先行文献の關係について」, 『長崎大学教育学部人文科学研究報告』, 54(1997), 19면. 카즈마타 타카시는 「아메와카히코조시」의 들머리에 나오는 부분이 일본의 뱀신랑 설화, 고사기의 야마타오로찌 신화, 미와야마 신화 따위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티프라고 주장한다.

19) 松本隆信 校註, 앞의 책, 83면. 각주에서 마츠모토 류신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후반부와 오호아나무지 신화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메와카히코조시」가 『고사기』의 서사와 세계관을 전복시킨다는 느낌을 준다. 지하계의 스사노오는 천상계의 오니가 되고, 오호아나무지는 성별이 바뀌어서 장자의 셋째 딸(칠석, 직녀)이 되었고, 스세리비메는 남자인 해룡왕(견우성)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호아나무지가 뱀과 지네의 방에 머물 때 스세리비메가 준 ‘히레(比禮)’라는 천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장자의 셋째 딸은 아메와카히코의 소매(袖) 덕분에 살아남는다. 또한 스사노오가 사위가 되고 싫어하는 오호아나무지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여한 것처럼, 천상계의 오니는 며느리가 되고자하는 셋째 딸에게 난제를 부여한다.

「아메와카히코조시」를 『고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전반부에서는 인신공희로 바쳐진 쿠시나다히메가 야마타오로찌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뱀퇴치자 형 영웅인 스사노오는 등장하지 않는다. 후반부에서는 ‘지네와 뱀의 소굴’이라는 모티프와 ‘주술적인 소매’ 모티프가 삽입됨으로써 해룡왕의 아버지인 오니(鬼)가 오호아나무지에게 시련을 준 스사노오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하여,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는 스사노오 형 인물이 뱀퇴치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뱀 (야마타오로찌)의 아버지로 그려진 셈이다. 고타나조노 천황이 「건록위 설화」를 개작하면서 스사노오라는 『고사기』에 등장하는 용퇴치자 형 영웅을 노골적으로 희화(戲畫)화 또는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사기	아메와카히코조시	비고
1	뱀신랑	야마타오로찌	해룡왕	야마타오로찌 신화
2	셋째딸	쿠시나다히메	셋째 딸	
3	장인/시아버지	스사노오(지하계)	오니(천상계)	오호아나무지 신화
4	과제	뱀의 방, 지네와 벌의 방에 머물기 (오호아나무지)	지네 창고와 뱀 성에서 감금된 채 지내기 (장자의 셋째 딸)	
5	조력자	스세리비메	아메와카히코	
6	조력물	스세리비메의 히레, 쥐	아메와카히코의 소매, 개미	

이외에도, 고타나조노 천황의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용퇴치자 형 설화와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서기』에 실린 인덕(仁德, 닌토쿠) 천황 편 의 말미에는 용퇴치자 형 영웅이 등장하는 설화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길비중국(吉備中國)에 있는 천도하(川嶋河)의 분기점에 살고 있는 용(大虬)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카사노오미(笠臣)의 용감하고 힘센 현수(縣守)가 표주박(瓢)으로 용(뱀)을 퇴치한다.²⁰⁾

그는 깊은 못에 가서 세 개의 박을 물에 던지며 “너는 자주 독을 뱀어 길 가는 사람을 괴롭혔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이 박을 가라앉히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가라앉히지 못하면 바로 네 몸을 베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용이 사슴으로 변해 박을 끌어당겼으나 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하여 곧 칼을 빼고 물에 들어가 용을 베었다. 그리고 다시 용의 무리를 찾았다. 깊은 못 바닥에 있는 굴에는 용의 무리가 가득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베었다. 그러자 못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현수연(縣守淵, 아가타모리노후치)이라고 불렀다.

『일본서기』에는 용퇴치자가 용의 씨족 전체를 몰살해서 피바다로 만든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아메와카히코조시」나 「건록위 설화」에 나타나는 뱀과 인간의 친연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뱀 아래자인 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는 아내가 작은 뱀으로 변신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치자 부끄러움을 느껴서 저주를 하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아내는 후회하면서 털썩 주저앉다가 음부가 젓가락에 찢려서 죽는다.²¹⁾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뱀 설화에서 신의 면모를 지닌 뱀은 참혹하게 죽고, 뱀신과 결혼한 여자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엿볼 수 있는 뱀과 이류교혼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감과 혐오감은 「아메와카히코조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본에서 구전되어 온 뱀신랑 설화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란 책에 실린 「일본민족의 뱀신랑설화 전승」이란 글에서 이나다 코우지는 일본 뱀신랑 설화의 전승 양상에 대해서 다

20) 연민수의 6인 옮김, 『역주 일본서기 2』(동북아역사재단, 2013), 47-48면.

21) 연민수의 6인 옮김, 『역주 일본서기 1』(동북아역사재단, 2013), 348-349면.

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²²⁾ “일본 민족이 전하는 민담은 거의 1200의 타이프가 있지만 「뱀신랑」은 더욱 서브타이프가 많아 9개에 달하고 있다. 또 이 이야기는 전국에 걸쳐 널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민담의 대표적인 타이프라고 할 수 있다.” 이나다 코우지에 따르면, 9개의 하위유형 가운데서 3개에서만 뱀과 여자가 혼인을 하고, 나머지 6개는 뱀의 구애와 구혼을 받은 여인이 이것을 재앙으로 여겨서 조력자의 힘을 빌려서 뱀을 죽인다. 코우지는 일본의 뱀신랑 설화를 “재난극복”을 테마로 한 설화로 보면서, “이들 서브 타이프는 일본열도의 본토에 잘 분포되고 있으며 오키나와에서는 아주 적은 것이 특색이다.”고 말한다.²³⁾

이나다 코우지의 유형 개요를 살펴보면, 9개의 하위유형 가운데서 <구렁덩덩신선비>처럼 ‘남편 탐색’ 모티프가 들어있는 유형은 단 한 개도 없다. <뱀 신랑-침사형>, <뱀 신랑-콩 볶이 형>, <뱀 신랑-엿듣기 형>은 야래자(夜來者) 유형이다. <뱀 신랑-노파 탈 형>, <뱀 신랑-독수리의 알 형>, <뱀 신랑-개구리 보은 형>은 한국의 <지네 장터> 설화와 유사한 ‘개구리 보은’ 모티프가 들어 있는 유형이다. <뱀 신랑-딸 변신형>은 뱀과 결혼한 딸이 뱀으로 변신한다는 유형이고, <뱀 신랑-계약형>은 유모가 뱀에게 한 약속 때문에 딸이 결혼식을 올리다가 뱀에게 납치되는 유형이다.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와 비교할 만한 일본의 <뱀 신랑> 유형은 <205D 뱀 신랑-시집가기 형> 뿐이다. 코우지가 소개하는 이 유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²⁴⁾

- (1) 아저씨가 가뭄으로 걱정이 되어 눈에 물을 넣어 주는 자에게 세 딸 중에 하나를 시집보내겠다고 혼자 말을 하자 뱀이 이내 물을 넣어준다.
- (2) 아저씨가 딸들에게 말하자 위의 두 딸은 거절하지만 막내딸은 승낙한다. 바늘 1000개와 표주박 1000개를 가지고 마중 온 젊은이를 따라 갔다.
- (3) 깊은 산 속 연못에 다다르자 젊은이는 “함께 물 속 집으로 들어갑시다.”고 권했다. 딸은 표주박을 모두 던져 “이것을 가라앉히면 물속으로 들어가겠

22) 최인학 편저,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 아세아설화학회(민속원, 1999), 103-112면. 이 논문은 안타깝게도 번역자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비문과 오타가 많아서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다. 직접 인용문을 약간씩 손질을 하고 내용은 요약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23) 같은 책, 103-104면.

24) 같은 책, 107면.

다.”고 한다.

- (4) 딸은 젊은이가 뱀의 모습이 되어 표주박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바늘 1000개를 모두 던져 뱀을 퇴치시켰다.

이 설화 유형이 <구렁덩덩신선비>나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공유하는 내용은 세 딸의 등장과 뱀의 청혼에 관한 대목뿐이다. 아버지가 뱀에게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뱀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첫째와 둘째는 뱀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막내딸만이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구전설화의 내용은 <구렁덩덩신선비>나 「아메와카히코조시」와는 전혀 다르다. 셋째 딸은 어쩔 수 없이 청혼을 받아들지만 뱀신랑을 따라서 이계 여행을 하기는커녕 바늘과 표주박을 사용해서 뱀을 적극적으로 퇴치한다.

이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뱀신랑 설화 유형에서도 이류교혼을 시도한 뱀은 대부분 참혹하게 죽는다. 6개의 하위 유형에서 뱀의 청혼을 받은 여자는 뱀을 퇴치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자들은 표주박 1000개와 바늘 1000개를 사용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조력자 (이웃, 개구리, 게)의 도움을 받아서 뱀을 죽인다. 뱀과 결혼한 여자가 뱀신랑을 퇴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2개의 하위유형에서도 뱀은 참혹하게 죽는다. <뱀 신랑-독수리의 알 형>에서 뱀과 결혼한 여자는 병이 들고, 뱀 신랑은 증으로 변신한 개구리가 가르쳐 준대로 아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독수리 알을 구하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뱀 신랑-딸 변신형>에서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여자가 뱀으로 변신하고, 뱀 신랑은 장인 장모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만, 결국 처가의 화재를 막아주려다가 타 죽는다. <뱀신랑-계약형>에서만 이류교혼한 부부의 불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유모가 뱀에게 아기 공주의 궁둥이를 훔으면 나중에 색시로 주겠다고 약속한 바람에 공주는 인간과 결혼식을 올리다가 물의 세계로 납치당해서 뱀의 신부가 된다.

일본의 구전 현장에서 채록된 뱀신랑 설화를 종합해보면, 뱀과 결혼한 여자들은 뱀을 혐오해서 잔혹하게 죽이거나, 병이 들거나, 뱀으로 변신하

거나, 물의 세계로 납치당한다. 또한 뱀 신랑은 여자가 실을 꿰어 둔 바늘에 찔려서 죽거나, 게에게 몸이 잘려서 죽거나, 표주박을 가라앉히려다 바늘에 찔려서 죽거나, 추락과 화재로 죽는 등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다. 인간과 뱀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은 대부분 뱃속에 있을 때 낙태된다. 특히 일본에서 구전되어 온 뱀신랑 설화에 등장하는 표주박은, 기기 신화와 마찬가지로, 뱀을 퇴치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들을 고려할 때, 뱀 남편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온갖 시련을 겪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아메와카히코조시」는 매우 특이한 설화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상징물이 표주박이다. 일본의 구전설화와 기기 설화에서 뱀은 아내 또는 용사가 던진 표주박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동안 바늘에 찔려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색시는 표주박(호리병박) 또는 박 넝쿨을 활용해서 하늘로 승천한다. 다시 말해서, 박은 뱀을 퇴치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꾸로 뱀과의 재결합을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다.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일본의 뱀신랑 설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구전되어 온 칠석 설화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에서 전승되는 칠석 설화와 칠석 문화는 노성환이 연구한 바 있어서,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노성환의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의 칠석설화」라는 논문에서 일본에서 전승되어 온 여러 편의 칠석전설을 소개하였다.²⁵⁾ 노성환이 소개한 일본의 칠석 전설은 주로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직녀도> 속의 검둥이와 유사한 개가 등장하는 설화들인데, 그러한 이야기에서 견우와 직녀의 인물 구성은 지남천녀(地男天女) 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칠석 설화는 <날개옷 설화>의 하위 유형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나다 코우지의 『일본석화사전』(1994)을 보면, 일본에는 약 130편 가량의 <날개옷 설화> 각편이 채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하위 유형에 칠석 모티프가 들어 있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는 이별형, 천상방문형, 칠

25) 노성환,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의 칠석설화」, 『일어일문학연구』 제64집 2권(한국일어일 문학회, 2008), 287-304면.

석결합형으로 나누어진다. 코우지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상계의 남자가 날개옷을 찾은 선녀와 영원히 이별하는 ‘이별 형’이 30편, 지상계의 남자가 선녀 아내를 찾아서 천상을 방문하지만 참외나 오이를 잘못 잘라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천상방문 형’이 60편, ‘천상방문 형’의 말미에 칠석 모티프가 첨가된 ‘칠석결합 형’이 35편 가량 일본에서 채록되었다.²⁶⁾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2013)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선아는 일본에서 문헌과 구술로 전승되어 날개옷 설화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선아는 <날개옷 설화>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풍토기』에 수록된 3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데, 이러한 문헌 설화에 칠석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²⁷⁾ 일본에서 칠석 모티프가 들어 있는 <날개옷 설화>는 주로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승되어왔다고 보아야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구전되어 온 칠석 설화에서 인물 구성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와 마찬가지로, 지남천녀(地男天女)의 구조를 형성한다. 지상계의 남자는 목욕하는 천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결혼하지만 옷을 발견한 아내가 천상계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승천해서 온갖 시련을 겪는다. 이러한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 박과 식물이나 박 녀쿨은, 일본 뱀신랑 설화와는 대조적으로, 지상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우주목의 역할을 한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구전되어 온 <날개옷 설화>의 말미에 각각 첨가된 칠석 모티프 역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는 장자의 셋째 딸이 천상계에서 천 마리의 소를 돌보고, 천 석의 쌀을 옮기는 과제를 부여받지만, 칠석결합형 <날개옷 설화>에서는 지상에서 승천한 어부(농부, 나무꾼)가 소를 돌보고 쌀을 옮기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농경에 관련된 과제를 치른다. 칠석결합형 <날개옷 설화>에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과제를 치루는 인물은 견우이고, 은하수를 만들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는 장인이다. 일본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온 칠석 설화는, 아르네-톰슨의 유형론을 따른다면,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26) 稲田浩二, 『日本昔話事典』(弘文堂, 1994), 621면.

27) 이선아,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탐색>이 아니라 <유형 400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 남편>인 것이다.

4.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세경본풀이」의 공통 모티프: 승천, 박, 개미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나타나는 ‘금기 파괴’와 ‘남편 탐색’이란 모티프가 들어 있는 뱀신랑 설화는 일본과 중국의 설화문학에서 발견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발견된다. 『고사기』, 『일본서기』, 일본 뱀신랑 구전설화에 담긴 세계관은 「아메와카히코조시」가 보여주는 세계관과는 다르다. 일본의 기기 신화와 구전설화에서는 뱀에 대한 강렬한 공포심, 두려움, 혐오감을 입을 수 있다. 「아메와카히코조시」를 「큐피드와 프시케」와 「견륙위 설화」와 비교한 카즈마타 타카시(勝俣 隆)는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쓰여진 15세기에 「큐피드와 프시케」가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²⁸⁾ 카즈마타 타카시는 도우 코우지(土居 光知)가 주장한 「큐피드와 프시케」와의 유사성이란 것이 거의 『고사기』, 『일본서기』, 일본 설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화소라고 보았다. 도우 코우지가 지적한 것 가운데서 「큐피드와 프시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큰 증거는 개미 모티프인데, 카즈마타 다카시는 「큐피드와 프시케」에서 개미가 맡은 역할은 곡식을 선별하는 것이고,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개미는 쌀을 운반하는 것이어서 엄밀하게 말해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⁹⁾ 하지만 ‘곡식을 선별하거나 운반하는 개미’라는 모티프는 일본의 설화문학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어서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카즈마타 다카시는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일본의 기기 신화와 구전문학에서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을 뿐, 기존의 일본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나타난 인물구성과 세계관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과 인접 국가인 한국에서 「큐피드와 프시케」 계열의 <유형 425> 설화가 활발하게 구전되어왔다는 사실을 모두 간과하였다.

「아메와카히코조시」는 <구렁덩덩신선비>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주

28) 勝俣 隆, 앞의 글, 17-22면.

29) 같은 글, 20면.

도의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와도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녔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나타나는 지너 승천, 박씨와 박녕쿨, 며느리 취재 시험, 개미 모티프는 <세경본풀이>의 후반에 모두 삽입되어 있다. <세경본풀이>의 후반부에는 「아메와카히코조시」와 비교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들어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지상에 사는 자청비는 잘못을 저질러서 하늘에서 온 연인 문도령을 잃고 만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박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연인과 재회한다. 문도령과 재회한 자청비는 남편의 방에서 몰래 숨어 살다가 시부모에게 들켜서 며느리 취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청비가 승천할 때 박녕쿨을 사용하는 것과 천상에서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은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세경본풀이>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화소이다.

장주근이 채록하고 고대중이 구송한 무가를 보면, 문도령은 자청비를 지상에 두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갈 적에 박씨 한 방울을 내어주면서 '정월 첫뫼날(첫 돼지날)랑 싱그시면 알아볼 도래가 있다'고 일러 준다.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령이 오지 않자 자청비는 '정월 첫 돼지날에 심은 박씨에서 박 줄이 자라자 그것을 타고 하늘 옥황에 올라간다. 하늘에서 삼천궁녀가 물을 뜨지 못해서 우니깐 자청비는 문도령의 집을 알려주면 물을 떠주겠다고 한다. 자청비는 하늘나라 수양청 버드나무 위에 열린 조그만 박으로 두레박을 만들어서 삼천궁녀들에게 물을 떠주고 문도령의 거처를 알아낸다.³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대목이 다른 무당이 구송한 <천지왕 본풀이>에도 나온다. 남무 정주병이 구송한 무가에서 옥황상제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와서 총맹부인과 합궁을 한 후에 천계로 올라가면서 박씨 두 방울을 주면서 "나를 찾아올 때는 '정월 초해일에 이 박씨를 심으면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두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듣자 총맹부인은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옥황상제임을 밝히면서 증거로 박씨를 준다. "정월 초해일에 박씨를 내 놓고 형제

30) 장주근, 「세경본풀이」,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민속원, 2013), 221, 232-233면.

는 서로 나눠 하나씩 심었더니 금세 옥황으로 줄이 뻗어 갔다. 형제는 이 가지 저 가지를 밟아 옥황에 올라 가고 보니 아버님께서 타시는 용상뿔에 감겨 있었다."31) 따라서, 제주도 무가에서 박씨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신물(神物)인 것이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색시는 서경의 여자로부터 일야표라는 신물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여행한다. 서경의 여자가 준 일야표(一夜杓, いちやひさ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마즈모토 류신(松本隆信)은 일야표를 '하룻밤 동안에 자라는 호리병박(표주박) 또는 박'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구령이의 색시가 서경의 여자에게서 일야표를 얻어서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하룻밤 만에 자라는 박 덩굴을 타고 하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³²⁾ 반면에 『일본신화전설의 연구』(1925)에서,³³⁾ 다카기 도시오는 일야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에 등장하는 두레박 같은 것일 거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다카기 도시오는 헤이안 시대에 호리병박이 물을 길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일야표를 커다란 호리병박 또는 희귀한 호리병박일 거라고 생각한다. 호리병박을 타는 것은 두레박 같은 것을 타는 것이지 밭에서 자라는 박 넝쿨을 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에 등장하는 두레박을 거론한 바 있다. 다카기 도시오의 견해와는 달리, 일본 에마키모노에는 색시가 박 넝쿨을 타고 승천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아메와카히코의 색시가 박 넝쿨을 타고 승천을 하였는지, 아니면 호리병박 또는 표주박 같은 바가지를 타고 승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아메와카히코의 색시가 하늘에 승천하는 데에는, 자청비나 나무꾼이 승천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과 식물이 하늘길을 열어주는 우주목의 역할을 한다.

31)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2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9면.

32) 松本隆信 校註, 앞의 책, 79면.

33) 高木敏雄, 大林太良 共編, 『増訂 日本神話伝説の研究 2』(東京: 平凡社, 1974), 241-245면.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색시가 박 넝쿨 또는 표주박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국 설화에서 끌어 온 모티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들어 있는 조력자 개미 모티프는, 일본 설화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반면에 한국의 민간 신화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모티프여서, 한국에서 유입된 모티프일 가능성이 크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서 ‘시아버지-오니’가 색시에게 내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천상계에서 쌀 천 석을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다른 창고로 모두 옮기라는 것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색시는 남편이 준 소매를 흔들고 주문을 외우니깐 수많은 개미가 나타나서 쌀을 옮겨 준다. 며느리가 창고에 쌀을 옮기고나자 시아버지는 산가지(算木)를 가져와서 쌀의 양을 측정한 후, 쌀이 한 톨 부족하다고 야단을 친다. 땅에 흘린 쌀 한 톨을 찾아 나선 색시는 허리가 잘린 개미 한 마리가 쌀 한 톨을 옮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색시는 그 쌀 한 톨을 보태서 천 석의 쌀을 모두 다른 창고에 옮기 후에야 비로소 그 다음 과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일제강점기에 정인섭, 손진태, 박영만 등이 편찬한 조선설화집에 수록된 홍수 설화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조력 동물이 개미이다.³⁴⁾ 한국의 홍수 설화에서 개미는 홍수로 떠내려가는 자신을 구해 준 나무도령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무도령이 사위 취재 시험을 치를 때 밭에 뿌려진 조를 선별해서 옮겨주는 과제를 대신해준다.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언양면에서 채록된 <대홍수와 나무도령> 유형의 각편에는 ‘다리를 저는 개미가 곡식 한 톨을 늦게 운반해서 주인공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내용’이 들어 있다.³⁵⁾ 또한 제주도 무속신화인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가운데 개미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는 각편이 여러 편 있다. 진성기가

34) 정인섭, 『한국의 설화』(최인학·강재철 역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손진태, 『조선설화집』(최인학 역편, 민속원, 2009); 박영만,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권혁래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06).

35) 「은혜 갚은 산돼지와 개미」, 『한국구비문학대계 6-6: 전라남도 신안군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25-329면; 「사람의 조상인 밤나무 아들 올범이」,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경상남도 울주군 편』(정신문화연구원, 1984), 542-551면.

편찬한 『제주도전설』에 실린, <이공본풀이>를 쉽게 풀어 쓴 「한락둥이」란 설화에서 개미가 등장하는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³⁶⁾

주인이 이번에는 아직 파종 때가 아니라면서 좁씨를 다시 모아 오도록 하였다. 밭에는 이미 좁씨가 한 곳에 모두 모아져 있었다. 주인은 한락둥이가 모아 온 좁씨를 전부 헤아려 보라고 하였다. 다 헤아리고 나자 한 알이 부족하다면서 찾아 오라는 것이었다. 한락둥이는 다시 밭으로 가 보았더니 개미 한 마리가 좁씨 한 알을 물고 기어가고 있었다.

“개미야, 그 좁씨를 나에게 다고.”

“이건 한락둥이에게 줄거다.”

“내가 한락둥이야.”

그제서야 개미가 좁씨를 내 주었다.

이것과 유사한 대목이 <세경본풀이>에도 등장한다. 자청비는 자신을 겁탈하려는 종을 죽인 후에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부모는 자신들을 먹여 살려 줄 종이 없어졌다고 나무란다. 자청비가 종이 한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부모는 넓은 밭에 좁씨를 뿌려 놓고 주워 오라고 한다. 안사인 구송본에서는 이 대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³⁷⁾

넓은 밭에 좁씨 닳말 닳되 칠세 오리를 뿌려 놓고 자청비에게 다 주워 오라고 하니, 눈물로 다리를 놓으면서 방울방울 줍는 것이 닳말 닳되 칠세 오리를 줍다 보니 좁씨 한 방울이 간 곳 없다. 이 구석 저 구석 찾아도 못 찾아 밭 문밖에 나오다 보니, 개미 놈이 좁씨 한 방울을 물고 문 밖에 나와 있으니,

“말 모른 벌레야, 너도 나의 간장을 태우느냐?”

좁씨 한 방울을 빼앗아 잔등이를 밟아 버리니, 그때에 낸 법으로 개미 잔등이가 가는 법입니다.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개미는 조력동물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곡식 한 알을 운반하는 개미’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아메와카히코조시>와 유사하다. 진성기의 『제주도 무

36) 진성기, 『제주도전설』(백록, 1993), 105면.

37)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235면.

가본풀이사전』에 수록된 여무 강을생이 구송한 「세경본풀이」는 이 장면을 훨씬 더 <아메와카히코조시>와 비슷하게 묘사한다. 자청비의 어머니는 중 정수남을 죽인 딸을 야단치면서,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넓고 큰 밭으로 가서 조를 밟아 오라고 한다. 멸망일(滅亡日)에 밭을 간 사실을 안 어머니는 딸에게 다시 조 씨를 거두어 오라고 명한다. 자청비가 거두어 온 조 씨를 먹줄로 재 본 어머니는 조 씨 한 톨이 모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자청비는 때죽나무 회초리를 둘러매고 부족한 조 씨 한 톨을 찾아 나선다. 개미가 조 씨를 물고 가는 것을 본 자청비가 개미에게 조 씨를 내 놓으라고 하지만, 개미는 겨울 양식이어서 내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때죽나무로 개미 잔등을 때리니깐 개미 잔등이 몽뚝 끊어지게 되어서 개미 허리가 흔들흔들 거리게 된 것이다. 자청비는 개미가 뺏은 한 톨을 보태서 조씨 석 섬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지만, 어머니는 딸의 평범치 않은 능력이 못마땅해서 집에서 내쫓는다.³⁸⁾

개미 모티프가 한국의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어 온 대홍수 설화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녀와 나무의 결혼 또는 인간 여자와 나무(밤나무, 둥구나무, 계수나무)의 교접으로 나무도령이 태어난 것, 나무도령이 인간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취재 시험이 조농사인 것, 개미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를 선별해서 운반해주는 일을 대신해 준 것 따위는 ‘개미 모티프’가 등장하는 한국의 홍수 설화의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 무속신화에서도 자청비 또는 한락동이(한락궁이)가 뿌리고 거두어 들여야 할 곡식이 <나무도령> 설화와 마찬가지로 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주도와 본토에서 전승되어 온 구전신화에 ‘개미’와 ‘조농사’가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설화의 기원이,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도 될 정도로, 매우 오래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³⁹⁾ 「아메와카히고조시」에 ‘쌀 한 톨을 뒤늦게

3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292면.

39) 한반도에서 조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4000년 무렵이고,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000년대로 추정한다. 안승모, 「한민족과 농경문화의 기원에 대한 비판적 소고」, 『인문연구논집』 2집(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79, 82면.

운반하는 허리 잘린 개미'와 '곡식을 자로 채는 시험관'이라는 화소가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15세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구전 신화가 일본에 전파된 듯싶다.

5. 결론: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친연성

한일비교문학의 시각에서 볼 때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는 한일관계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설화이다.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이야기 전승에 참여한 화자와 향유층이 다르고 전승 매체와 서사의 디테일이 다르지만, 두 설화의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본고의 두 번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일본 설화문학에서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에 부합되는 유일한 이야기인 「건록위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를 일본의 상층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는 수수께끼라 아니할 수 없다. 「건록위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오래 전부터 일본 땅에서 자생적으로 전승되어 온 설화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구전 현장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또한 이 두 문헌 설화가 일본인의 보편적인 정서와 사고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설령 특정 개인의 창작성이 가미된 이야기일지라도, 구전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직까지 「아메와카히코조시」나 「건록위 설화」와 유사한 뱀신랑 설화가 일본의 구전 현장에서는 채록되지 않았다.

이나다 코우지 따르면, 일본에서 뱀은 조몬시대와 같은 상고시대에는 주술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으나 8세기 나라 시대의 문헌에서 이미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⁴⁰⁾ 그는 『상륙국 풍토기常陸國風土記』에 “사신은 산림을 개간하고 논을 일구는 영웅의 행위를 방해하는 신”으로 취급되었고, “영웅은 사신을 낚은 신으로 처우하고 사람과 뱀의 경계를 정하고 뱀을 사당에 봉안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나다 코우지는 “사신(蛇神)은 수렵채집시대부터 농경시대로의 이행의 시기에 낚은 신으로서 그 주술적인 힘은 두려울만큼 잔존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 즉 불

40) 최인학 편저,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 104면.

교에 의한 불보살 등에 의해 대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 『일본영이기』에 실려 있는 뱀 퇴치 설화를 언급하였다. 이나다 코우지의 고찰이 일본 고문헌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뱀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찾아서 천계로 여행하는 「건록위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일본 설화 문학에서는 매우 특이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건록위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나타난 뱀신랑의 이미지, 이류 교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 전체적인 서사 구조 따위가 보편적인 일본 뱀신랑 설화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은 이 두 설화가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전승되어 온 설화가 아니라 외국 설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이야기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카즈마타 타카시(勝俣 隆)는 「아메와카히코조시」에 삽입되어 있는 모티프가 일본의 다양한 설화와 고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며 일본에 그리스 설화가 유입된 시기가 16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이 설화가 「큐피드와 프시케」의 영향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⁴¹⁾ 만약 「큐피드와 프시케」가 「아메와카히코조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15세기 이전에 이미 <구렁덩덩신선비>가 한반도에서 폭넓게 전승되고 있어서 일본의 상층 문화에까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렁덩덩신선비>는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채록된 자료가 90편 가까이 될 정도로 폭넓게 전승되어 온 설화이다. 또한 서사를 구성하는 모티프들의 보편성, 구술성, 태고성(太古性)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기원이 무척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구렁덩덩신선비>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점이 우연한 유사성이 아니라 설화의 교류와 전파에 기인한 친연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전체적인 서사구조의 유사성: 두 설화에 내재된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세 딸을 둔 부자 영감,

41) 勝俣 隆, 앞의 글, 17-22면.

뱀의 협박과 청혼, 두 언니의 거절과 막내의 승낙, 뱀신랑의 첫날밤 변신, 금기 선언, 언니의 질투, 금기 파기, 남편의 실종, 남편 탐색, 이계 여행, 시련과 과제 따위로 요약할 수 있다.

(2) **일본과 중국의 구전문학 속의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탐색> 설화의 부재:** 일본에서 전승되어 온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설화는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건록위 설화」가 유일하다. 중국에서도 「금기 파기」 「남편 탐색」 「이계여행」 모티프 따위가 들어 있는 <유형 425 잃어버린 남편 탐색> 설화가 채록되지 않았으며, 후지와라의 『고금집주』에 실린 「건록위 설화」는 그 전거(典據)가 불분명하다.

(3)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나타난 뱀신랑의 이미지와 칠석 모티프의 특이성: 일본의 구전설화와 기기 신화에서 뱀신랑은 퇴치해야 할 괴물 또는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이류교혼이 비극으로 끝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메와카히코조시」와 <구렁덩덩신선비>에서 뱀신랑은 바다의 용왕이자 천상계의 별로 묘사되고, 이류교혼이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일본에서 구전되어 온 칠석 설화가 지남천녀 형의 인물 구성을 보이는 반면에, 「아메와카히코조시」는 지녀천남형으로 인물을 구성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4) 「아메와카히코조시」, 제주도 무속신화, 홍수 설화가 공통으로 지닌 모티프: 「이류 남편의 실종」 「지녀(地女)의 승천」 「비밀스런 신혼 생활」 「떠느리 취재 시험」 「곡식 한 톨을 나르는 골칫덩이 개미 한 마리」 「우주목·박과 식물」 등은 <세경본풀이>와 「아메와카히코조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티프들이다. 특히 「개미의 조력」은 일본설화문학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모티프이지만, 한국설화문학에서는 쉽사리 찾을 수 있는 태고성과 보편성이 큰 모티프이다. 인류의 기원을 다룬 한국 홍수신화와, 생명 꽃과 죽음 꽃이 피어 있는 서천 꽃밭에 관한 제주도 무속신화 <이공본풀이> 따위에서 개미가 조력 동물로 등장한다. 국가 간의 설화 교류

가 일대일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의 홍수신화, 제주도 무속신화, <구렁덩덩신선비>가 일찌감치 일본에 전파되어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아메와카히코조시」,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서사 구조와 모티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친연성을 고찰하였다. 「아메와카히코조시」에는 13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있었던 한일 설화 및 문화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많은 실마리 내지 흔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실마리를 추적해서 과거의 한일 관계를 파악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고대 및 중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 백 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한일 관계를 세밀하게 탐구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에 부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그러한 역량을 지닌 학자들이 「아메와카히코조시」에 내재된 수수께끼에 관심을 지니길 바라면서 필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을 적어보기로 한다. 8세기와 9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고문헌에서 이미 퇴치와 재앙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뱀이 무슨 까닭으로 새삼 13세기와 15세기에 일본의 상층 문화에서 사랑의 대상이자 천상의 별로 부상하게 된 것인지, <구렁덩덩신선비>가 민간에서 구술로만 전승되어 오고 「아메와카히코조시」가 일본 지식인 계급에 의해서 문헌으로만 전승되어 온 것은 무슨 까닭인지, 한국 아래자 설화와 <구렁덩덩신선비>의 주요 전승지가 옛 백제 땅이라는 것과 일본 아래자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전승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서동(薯童)과 견훤(甄萱)에 관한 설화와 <구렁덩덩신선비>와 같은 뱀신랑 설화를 전승해 온 백제 또는 후백제의 귀족과 왕족들이 패망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건축위 설화」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따위의 의문을 남긴 채 본고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⁴²⁾ 

42) 松本隆信 校註, 御伽草子集, 新潮日本古典集成 第34回(1980), 76면.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6-6: 전라남도 신안군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한국구비문학대계 7-6: 경상북도 영덕군 편(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편(1)』(정신문화연구원, 1984).
- 강소연, 『조선시대의 칠성탱화』(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광순, 『경북민담』(형설출판사, 1978).
- 김경희, 「구령덩덩신선비 설화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석사학위 논문, 1997).
- 김환희, 「<구령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동화와 번역』 제4집(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 노성환,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의 칠석설화」, 『일어일문학연구』 제64집 2권(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 노성환 역주, 『고사기』(민속원, 2009).
- 박영만(권혁래 옮김),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한국국학진흥원, 2006).
- 박종익 편, 『한국구전설화집 13: 충남편 1』(민속원, 2005).
- 서대석, 「<구령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손진태, 『조선설화집』(최인학 역편, 민속원, 2009)
- 안승모, 「한민족과 농경문화의 기원에 대한 비판적 소고」, 『인문연구논집』 2집(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연민수의 6인 옮김, 『역주 일본서기 1』, (동북아역사재단, 2013).
- _____, 『역주 일본서기 2』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이선아,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제주대학교 일어일문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년).
- 임석재, 『임석재전집 6 한국구전설화: 충청북도 편/ 충청남도 편』(평민사, 2003).
- _____, 「구령덩덩신선비 설화와 큐비드사이키 설화와의 대비」, 『구비문학 국제 연구 발표회-설화의 연구: 발표문 개요』(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3.21-23).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민속원, 2013).
- 정인섭, 『한국의 설화』(최인학·강재철 역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진성기, 『제주도전설』(백록, 1993).
- _____,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 최교연, 「<구령덩덩신선비>의 전승 양상 연구」(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 최래옥, 「구령덩덩신선비」, 『전북민담』(형설출판사, 1979).
- 최인학 편저,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 아세아설화학회(민속원, 1999).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2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 2007).

網野善彦외 2인, 『いまは昔むかしは今1 瓜と竜蛇』(福音館書店, 1989).

松本隆信 校註, 『御伽草子集: 新潮日本古典集成 第34回』(新潮社, 1980),

稻田浩二, 『日本昔話事典』(弘文堂, 1994).

勝俣 隆, 「中世小説『七夕』と先行文献の関係について」, 『長崎大学教育学部人文科学研究報告』 54(1997).

高木敏雄, 大林太良 共編, 『増訂 日本神話伝説の研究 2』(東京: 平凡社, 1974).

田阪正則, 「IV. 한일 설화 비교연구. 「아메와카히코조시(天稚彦草子)」와 이계탐색형 「구렁덩덩신선비」」,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蛇(뱀)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FF Communications, No. 184, 1961(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1973).

Christine Goldberg, "The Historic-Geographic Method: Past and Future."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Vol. 21, No. 1(1984), pp.1-18.

Hans-Jörg Uther, *The Types of International Folktales: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Based on the System of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Vols 1-3, FF Communications No. 284-86(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0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Affinities between the Korean Folktale of “the Serpent Husband” and the Japanese Story of “Amewakahiko-zōshi” : a Study of <ATU 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tales in Korea and Japan

Kim, Hwan He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affinities between the Korean oral folklore called “The Serpent Husband and the Japanese medieval story called “Amewakahiko-zoshi” by analyzing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common motifs. Though these two tales are quite different in many ways such as the storytellers, the media for transmitting the tales and the social class of the audience,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se two serpent-husband tales have much in common: the marriage proposal from the serpent, sibling rivalry, transformation, taboos against destroying the animal-skin, a quest for the lost husband, journeys into the other world, difficult tasks, etc. The story line of these two tales conforms to the outline of the tale-type of <ATU 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Strangely enough, “Amewakahiko-zoshi” is much closer to the Korean folktale called “The Serpent Husband” than to the Japanese ones. In Japanese myths and folktale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other versions of <ATU 425>: most of the snakes who attempt to marry human girls meet a tragic death and animal-human marriage has been described as a disaster. The motifs of ‘journey to the heaven,’ ‘gourd or calabash tree,’ ‘ant as a grateful animal’ in “Amewakahiko-zoshi” can also be found in Korean oral folklore of the great flood as well as in the Cheju shamanist myths of agricultural goddess and the warden of the marvelous flowers.

<Key words> : Kurōngdōngdōng-Shinsōnbi, amewakahiko-zōshi, <ATU 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Cupid and Psyche, Shamanist Myths of Cheju Island, animal bridegroom, serpent husband, the Great Flood, ant motif, grateful animal, Kojiki, Nihonshoki, oral folktales,

* Research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구렁덩덩신선비>와 「아메와카히코조시」의 친연성에 관한 비교문학적인 고찰 155

comparative study

접수일: 2014.03.30, 심사일: 2014.05.02, 게재확정일: 2014.05.12

K C I